

# 21세기 실내공간과 공공디자인

신홍경 / 경원대학교 교수, 서울시 공공디자인 위원

## 1. 공공디자인 왜 필요한가?

산업을 디자인으로 대표하는 시대에서 문화를 디자인으로 말하는 시대로의 변화.

### 1) 21세기 사회와 공공디자인

세계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오랜 시간 보존해 왔던 전통과 관습들이 21세기적 새로운 가치관들에 의해 충돌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과 갈등의 시대적 흐름에서 국제화된 도시와 그 사회는 자문화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공존과 교류, 이를 통한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게 노출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 그리고 그 정보의 전달과 확산의 속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가 소속된 사회집단의 관계는 더 이상 “너와 나”의 관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수많은 타자의 사회와 문화)속에 소속되어 있다. 다원화된 네트워크 사회에서의 ‘공공적 가치’란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의 참여를 의미한다.

### 2) 과거와 현재, 무엇이 문제인가?

공공디자인의 역할이란,

21세기 사회의 다양한 시대정신을 공공이란 그릇에 담아내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 문화적인 차원에서 공공디자인은 다원화된 도시 거주자의 요구, 복합화한 도시환경과 시설물들을 통합하고 조정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공공디자인은 가장 우선시되는 정책의 주류에 위치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상황은?

#### ① 공공 환경에 대한 다양한 요구의 증대

21세기 도시사회에서의 개인 및 집단의 다양한 요구의 증대와 이를 수용하고 종합할 도시 환경에 대한 통합적인 새로운 기준과 제도의 부재

#### ② 공공 시설물에 대한 일회적이고 파편화된 과잉디자인

-현재의 공공환경시설관련 법, 기준은 다분히 파편적으로서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통시적 장치가 없음

-현행법이나 시행령의 체계에서 건축, 도시, 교통 역할 평가는 미관심의, 경관 심의는

부차적이고, 용적률, 사유권 등 기능성 위주의 토목 건설 공사가 주류.  
-방음벽, 고가도로 시설물, 구 단위, 길 단위, 지역 등의 요구의 단편적 실행.

③ 통합과 조정, 소통과 조화의 부재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공공디자인의 부재

지방 자체단체의 키치적 사고로 인한 지역수준과 도시환경의 질 저하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도시전체의 쾌적한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기능의 부재

④ 다양한 현상의 조화와 접목의 부재

공공적 가치와 목적의 구현을 위한 역사, 문화, 장소,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국가 정체성 및 지역 특성 등의 연구 개발에 대한 통시적인 계획의 필요성

⑤ 새로운 정책 과제를 담아내는 제도와 기구의 미비

- 단편적인 정책 수립으로 통합적 시너지효과 부족

한국의 산업디자인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지만,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의 공공디자인은 그 개념이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으며 또한 상대적으로 매우 낙후되어 있음.

공공디자인을 위한 새로운 요구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공공 시설물의 선도적 역할과 방향설정을 위한 기준\_제도의 구축 필요성 증대

산업디자인 특성	공공 디자인 특성
生産	文化
동일하기	다르기
표준화	다원화
단발적	순환적

## 2. 무엇이 공공디자인 인가?

### 1) 통합과 조정, 소통과 조화

공공디자인은 이렇게 광역화되고 다양한 범위의 대상물들을 ‘통합과 조정’ 그리고 ‘소통과 조화’ 라는 목적에 그 공공적 가치를 둔다.

### 2) 삶의 방식과 시간을 담은 공간의 영역

소멸되고 망각되었던 장소성과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것

### 3) 도시환경-장소성 인식의 부재 및 정체성 상실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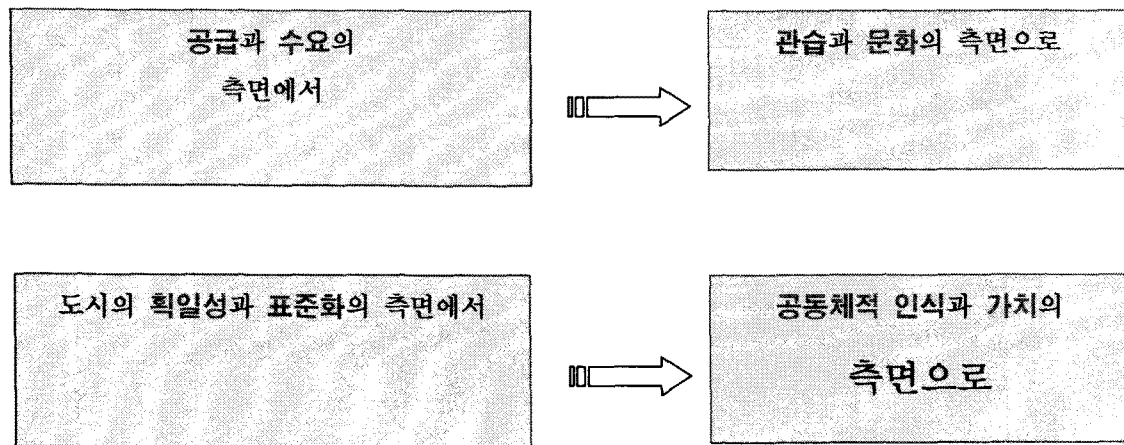
### 4) 획일성에서 다양성으로

행정의 관리와 운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다양하고 복잡한 21세기 현대사회와 그 구성원들을 획일화하고 평균화하는 것이다.

공공디자인은 한 국가 국민 지역에 대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도시는 크고 작은

사건에 의해 팽창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혹은 쇠퇴하기도 한다.

이러한 크고 작은 사건을 담을 수 있는 제도와 기준을 마련해주는 것이 공공디자인의 아젠다이다.



### 3. 공공디자인 어디로 갈 것인가?

1) 21세기사회에서의 공공디자인의 특성과 방향은 아래와 같다.

1. 이미지에서 메모리로의 전환
2. 아이콘에서 텍스트로의 전환  
보는 것에서 읽는 것으로의 전환
3. 영웅주의에서 소영웅주의로의 전환
4. 쌍방향 소통과 상호작용
5. 비움과 절제의 디자인
6. 복제하기
7. 인스턴트 문화와 감성 도시
8. 모바일과 디지털 문화

‘즐기기보다는 참아야 하고 무시해야만 하는 환경에서 사는 것은 인간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다.’ -에드워드 랠프-

질문이 다르면 답도 다르다 david berreby

현대도시의 공공 환경은 그 이전 시대보다 훨씬 복잡한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상대적 관계에 놓여있다. 이러한 층위의 복잡다단한 공공환경은 시간과 공간의 상대적 소통을 필요로 한다.

지금까지 간과하거나 무시했던 문제들에 대한 질문(자극)들이 발생 하고 있고, 누군가는 그 질문에 분명한 답(반응)을 제시해야 한다.  
 공공디자인은 21세기 디자인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이며 이 질문은 새로운 답을 요구한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질문의 틀' 을 만들어야 한다.  
 그 질문의 틀은 1. ENSEMBLE 2. MINIMUM 3. CONTEXT 4. CONVERGENCE의 4가지로 구성될 수 있으며 이 구성은 E=mc<sup>2</sup>로 축약 할 수 있다.

### 1. ENSEMBLE

도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미술은 '환경조각'이나 '미술장식품'등으로 불리며 도시의 미적인 장식물로 부속되어진 현상에 대한 개념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공공공간 미술'의 새로운 흐름은 작품을 통해 공공장소를 새롭게 정의하여 공공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후기 산업자본시대에 알맞은 새로운 도시 인프라를 위한 장소마케팅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 2. MINIM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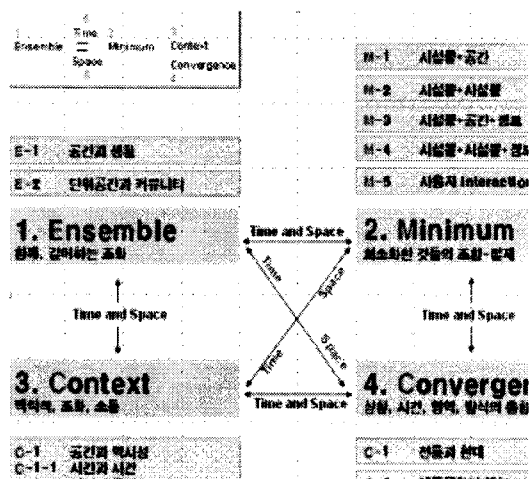
시설물 자체에서 시설물의 환경으로 의미의 초점이 옮겨지는 과정에서 '장소-절제성'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다.

### 3. CONTEXT

맥락적 경험이란 공간 안에 위치한 시설물이 그 주변의 환경과 함께 사용자의 경험방식으로 인해 순환적 시제 속에 변화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 느끼면서 그곳의 공간이 그들로 하여금 다시 정의 내려진다는 의미로써 이해할 수 있다.

### 4. CONVERGENCE

상호작용 하는 인터랙티브 공간으로의 공공공간의 변화와 공공미술 장소 특성적 개념의 확장은 사회 문화의 수직적 계층 구도에서 수평적 관계로의 인식 변화, 즉 각 영역간의 상호 소통적인 관계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즉 인간과 상호 교감하는 커뮤니케이션 대상으로의 공공공간으로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2) 시간, 공간, 상황, 생활방식 등으로 이루어진 층위의 다양한 도시적 환경의 고찰과 적용.

공간에 장소와 시간의 개념이 동시에 작동하게 되면 ‘공간+시간+상황’의 논리가 성립되어 도시는 다양한 층위의 상황과 사건들로 가득 차게 된다.

그 속에서 20세기 공공 디자인은 형태와 스타일을 중시하는 디자인의 남용으로 파편화되고 단편적이며 조화성이 실린 시각인식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다가오는 21세기 사회에서의 공공디자인은 과거 현재 미래의 순환적 시제속에서 그 사회문화의 맥락적 관계를 통해 ‘심층의 현실과 복잡한 진실’을 알아내는 사유적 소통공간으로 존재시킴이 바람직한 접근이라 할 수 있겠다.

## 3) 다양한 영역의 통합과 소통

민속학, 지리학, 공공미술, 도시계획, 건축, 실내건축, 색채 및 조명, 공간설치 및 공간연출 디자이너, 유니버설 디자인, 무장애 시설물 및 환경 전문가, 사회 소수자를 위한 전문 정책 등의 다양한 영역의 통합과 소통. 다양한 층위의 시간과 공간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재 모습 속에서 소멸된 것을 복원하고, 망각된 것을 다시 발견하여 과거, 현재, 미래의 순환적 시제 속에 장소성, 공공성, 문화적 현상, 역사, 예술, 삶의 방식을 공공디자인이라는 새로운 그릇에 담아내어 쾌적하고 더 나은 환경을 새롭게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함으로써 도시의 원형, 문화의 원형, 장소, 시간의 원형들을 새로이 발견하고 창조하여 삶의 새로운 동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기준과 요구들은 기존의 획일화되고 표준화 된 공공환경을 개선하여 공공적 가치를 구현한다. 사유재산의 권리와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공공기관, 공공시설물에서 이러한 공공적 가치를 위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다양한 방법과 연구사례들을 선도해감으로써 도시공공환경의 쾌적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시간, 시대, 장소를 불문하고 모든 것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로 말하는 공공디자인은 사물과 환경의 절대적인 것과 자의적인 것 사이에 있는 그 무엇을 찾아내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공동체적 낙원을 찾아주어야 한다.

공공디자인은 ‘가치와 소통’을 지향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결합 시켜주는 행위이다. 건물의 외부와 내부의 형상은 상징과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소유자와 사용자의 이기심이 가장 잘 드러난다. 이러한 개별적 이기심의 요소들은 공동체 혹은 도시 경관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동한다. 즉 사회적 메시지로서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에게 감당할만한 가치를 주는 공공성은 무엇일까? 그것은 미술품으로 치면 적당한 가격의 진품에 해당하는 것이 공공디자인의 가치가 될 것이다. 무의미한 돌들이 쌓이면 의미 있는 돌이 된다. 디자인 된다는 것은 사물의 다양한 가능성들을 현실화 하는 것이다. 외형화한 파편과 조각의 모음들이 통합하고 내면화 하는 과정이 공공디자인이다.

## 4. 공공공간과 실내디자인

지식 정보화 사회에 사는 현대인들은 하루 중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공간에서 생활한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미치는 공간 환경의 품질은 대단히 중요하다. 실내공간은 주거나 상업 등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공간의 목적에 따라 기능별로 구분된다. 특히 상업공간은 트렌드, 패션 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주거 및 상업공간의 실내디자인은 괄목할 만큼 수준이 향상되었다.

물론 주거공간이 너무 트렌드화 되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주거'라는 고유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가 발전하면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의 가치 추구하고 공공 환경 및 시설물에 대한 새로운 요구들이 대두되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공공환경은 우리시대, 우리 삶의 현재가치를 가장 '공적'으로 대표하는 곳이다. '공공'과 디자인의 만남은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새로운 agenda 이다. 그러나 공공환경, 공공공간의 실내 환경은 거의 무시되고 방치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무(無)가치, 무(無)개념, 무(無)계획'은 한국의 공공실내공간의대표적인 3무(無)이다.

이제 우리는 공공환경의 공적 가치에 대하여 심도 깊게 고민하고 재발견하여야 한다. 공공공간의 실내디자인은 세계화시대에서의 보편성과 상징성 그리고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시대가치를 고유한 정서로 표현해야 하는 복합적인 소통체계를 가지고 있다.

### 1) 공공디자인과 브랜드개발

공공디자인은 특정한 장소에 대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장소는 크고 작은 사건에 의해 팽창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혹은 쇠퇴하기도 한다. 이러한 크고 작은 사건을 담을 수 있는 제도와 기준을 마련해주는 것이 공공디자인의 목적이 된다.

대중 소비사회에 의해 과장되어지거나 안전과 기능만을 위해 획일화 되어진 공공실내공간은 단지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측정되고 인식될 뿐이다.

지방화시대의 자치도시들은 공공이라는 새로운 가치의 브랜드개발에 나서야 한다.

공공브랜드가 이제 도시의 수준과 미래를 결정한다.

공공환경의 변화에 의해 다양성과 유니버설(장애인과 노약자)디자인이 요구된다.

모두를 아우르는 디자인의 적용은 개인의 사유공간인 주거나 특정인들을 위한 상업공간에 비해 다양한 사용자의 능동적 행위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공공공간의 출입구, 로비, 라운지, 화장실, 민원실, 대민봉사 공간 등이 그 첫 번째 대상이 된다.

### 2) 공공디자인과 정체성

인간은 실용적인 면만이 아닌 꿈과 소망에 의해서 영향과 자극을 받는다. 독창성은 다른 텍스트들과의 관계 속에서 탄생한다. 과거와 현재의 실체를 들여다보는 것은 디자이너에게는 '창의적 존재의 창고'이다. 전통과 관습, 현상과 실체라는 거대한 창의적 존재가치

의 참고에서 새로운 발견과 해석을 통해 우리 시대의 가치를 재구성한다.

공공의 가치가 사회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이라면 공공디자인은 새롭게 발전하면서 과거, 혹은 기존의 것을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질서위에 또 다른 하나의 층을 시루떡의 층위처럼 더해가는 것이다. 우리의 관습과 의식은 집단으로서의 중요한 상징이나 아이콘을 만든다.

따라서 사물이 갖는 '의미와 가치'는 어떤 문화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 수시로 바뀐다. 문화는 고유한 방식으로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표현하는 행동유형을 발전시키고 규범화 하는 것으로서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발전해온 문화적 맥락과 관습 가치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특정한 형태를 통해 표현된다. 공공문화는 일상생활의 구조를 내포 할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려주고 생활 속에서 차지하는 디자인의 범위와 역할의 가치를 이해하게 하는 것이다.

공공공간에서의 실내디자인의 중요성이 그동안 무시되어온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사람들과 상호 교감하는 커뮤니케이션 대상으로의 공공공간의 실내디자인은 도시, 문화, 장소, 시간의 원형들을 새롭게 발견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공간으로서의 실내디자인은 시대적 가치와 그 공간이 요구 하는 고유의 정체성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국회나 정부 청사는 국가정체성을 광역 혹은 지방자치단체청사, 도서관, 공공시설물, 지하철, 자치구청사, 구민센터 등은 지역정체성을 필요로 한다.

세계화된 사회는 시간과 장소의 동질화를 추구하여 다양한 사건과 현상을 균질화 하며 동시에 정보와 지식의 보편화에 의해 사회구성원들의 개체화가 급속히 진행 되고 있다. 공동체의 붕괴와 분화 되어진 사회구조의 변화처럼 우리의 도시경관은 지역적으로 시간적으로 기능적으로 철저하게 분리되고 파편화되어있다. 이처럼 분절된 다양한 기능의 도시 공공시설물 들은 동일한 시간과 공간속에서 서로 충돌 하면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순환적 시제로 존재하지 못하고 현재와 현실에만 살아남으려고 발버 발버둥치는 '나만의 도시'를 만들고 있다.

물질과 소비의 계층화, 행복과 쾌락 추구의 모호함, 개인과 집단의 편리함과 공동의 선포의 충돌, 살아야 하는 곳의 장소상실 등은 도시화 과정 속에 내재된 대표적 현상들이다.

디자인의 이름으로 도시 공공쓰레기를 만들어내고 디자인의 이름으로 또한 그 쓰레기를 치우는 한국의 도시일상은 너무나 비효율적이다! 디자인이 우리 모습을 바꾸는 진정한 수단이라면 선한 눈으로 바라보는 디자인과 다른 목적을 위하여 디자인으로 가장한 위선적 디자인은 분명히 구별 되어야 한다.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면 그 지역 전체가 빠른 속도로 슬럼화 되는 것처럼 개발과 성장 그리고 편리함이란 권력으로 이렇게 저렇게 유린당하고 방치 해옴으로서 도시 이미지의 심각한 훼손과 도시의 역사와 문화가 철저히 망각 되었다.

민속학, 지리학, 공공미술, 도시계획, 건축, 실내건축, 색채 및 조명, 공간설치 및 공간연

출 디자이너, 유니버설 디자인, 무장애 시설물 및 환경 전문가, 사회 소수자를 위한 전문정책 등의 다양한 영역의 통합과 소통이 공공디자인의 새로운 틀 속에서 융해되어져야한다.

다양한 층위의 시간과 공간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재의 도시 모습 속에서 소멸된 것을 복원하고, 망각된 것을 다시 발견하여 과거, 현재, 미래의 순환적 시제 속에 장소와 공공성, 도시 문화적 현상, 역사, 예술, 삶의 방식을 공공디자인이라는 새로운 그릇에 담아내어 쾌적하고 더 나은 도시 환경을 창조하는 일이 지금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시급한 일이다.

이러한 도시가치의 빠른 변화 속에 공공디자인의 역할이란 현대사회의 다양한 시대정신을 공공이란 그릇에 담아내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 문화적인 차원에서 공공디자인은 다원화된 도시 거주자의 요구, 복합화한 도시환경과 시설물들을 통합하고 조정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공공디자인은 대도시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정책의 주류에 위치해야 한다.

이제 공공디자인은 공공 환경과 시설물의 단편적인 것들의 모음목록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과 해석이다.